

《낮은 데로 임하소서》 100쇄 기념 시리즈 나와

개정판 · 오디오북 · 동화 나와

이청준의 신앙소설 《낮은 데로 임하소서》(이하 《낮은 데로...》)가 100쇄를 돌파했다. 흥성사는 이를 기념해 올 1월 원작의 개정판, 《오디오북 낮은 데로 임하소서(전2권)》, 동화 《어린이 낮은 데로 임하소서》(조성자 글, 신가영 그림)를 나란히 내놨다. 《낮은 데로...》는 지난 1981년 흥성사의 <민음의 글들> 시리즈의 제1권으로 출간된 후, 베스트셀러에서

스테디셀러로 이어지며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100쇄는 종교관련서 가운데 최다쇄의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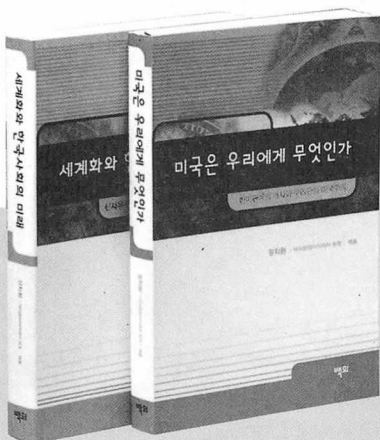
《낮은 데로...》는 새빛맹인교회의 설립자이자 운영자인 안유환 목사의 삶을 소설화한 것이다. 미래가 창창하던 군사외국어학교 교관이 갑자기 실명하고 방황하다가 맹인 복지사업에 투신하겠다는 인생목표를 세우고 귀국, 교회 건립 등 봉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소설가 이청준씨가 인세를 새빛맹인교회에 기부해 교회의 '자활'을 도왔던 사실은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미담이다.

흥성사가 이번 특별 시리즈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은 오디오북이다. 그동안 인쇄문화에서 소외됐던 시각장애인들에게 《낮은 데로...》의 감동을



전하기 위한 것이 기획동기. 총 9시간, 테이프 하나당 90분 분량이다. 원작의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문 성우가 원작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읽었고, 음악은 최대한 자제했다. 또 맹인들을 위해서 제목을 점자 스티커로 제작해 표지에 부착하고 자세한 소개 문구를 별지로 만들어 넣었다.

동화는 위인전 위주의 번역서에 익숙한 어린이들에게 실존인물의 삶을 직접 접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기획됐다. 원작을 세밀하게 검토해 어려운 단어와 등장인물의 성격을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 맞게 재해석했다. 또 원작의 결가지 이야기를 줄이고, 오래된 표현과 말투는 현대어로 대체했다. — 강성민 기자



세계화 시대 우리 사회의 대안적 발전방향 모색

학술대회 성과 수정 · 보완해

도서출판 백의에서 세계화 시대에 우리 사회의 대안을 모색한 책 두권을 나란히 펴냈다.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임길진 외)와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미

래》(유팔무 외, 이상 강치원 엮음)는 각각 한미관계

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미국주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에 미국의 역할과 우리의 대안을 다뤘다.

이 책들은 지난해 5월 강원대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미국 :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의 발표문과 토론내용을 수정 · 보완해 실은 것이다.

《미국은...》는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미관계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우리 사회의 교육과 문화에 내면화된 미국주의 요소를 분석했다. 우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내용과 그 의미를 역사적으로 조명하

고, 미국의 대한 교육원조를 통해 형성된 우리 교육 구조의 현실을 되짚었다. 후반부에는 학술회의에서 열린 좌담을 정리해 실었다. '한미관계사와 한국의 정치군사적 · 경제적 중속' '노근리 학살과 매항리 사건 및 소파 개정' 등의 주제를 다뤘다.

《세계화와...》는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비판적으로 조망했다. 전반부에서는 미국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특징으로 인식되는 '예외주의'의 배경, 인종간의 갈등과 차별 문제 등을 통해 미국사회의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했다.

후반부에서는 세계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정치 · 경제적 배경, 세계적 흐름 등을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의 경제정책, 특히 재벌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교육패러다임의 모순점을 비판하면서 바람직한 공동체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 김정은 기자